

유통분야
납품업체
현장 간담회



보도일시: 2025. 9. 29.(월) 12:00

모 두 말 씀

- 일 시 : 2025. 9. 29.(월) 10:30~11:30
- 장 소 :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모 두 말 씀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님을 비롯해서,
납품업체를 대표하는 업종별 협회의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변화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대형유통업체나 온라인플랫폼과 거래하는
중소 납품업체 분들을 만나
공정위가 준비 중인 정책에 대해 설명드리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중소 납품업체들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 유통기업들이 등장하고,
이커머스 확산으로 국가간 거래 장벽이 낮아지면서
중소 납품업체들이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접점은 확대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구조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고
판로확보를 위한 경쟁도 보다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유통질서 속에서
중소 납품업체들은 생존과 성장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온라인플랫폼을 비롯한
대형유통업체와의 힘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불공정한 거래관행에 노출되거나
땀 흘려 일군 성과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정한 거래의 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중소 납품업체들이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통기업 또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유통분야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 납품업체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 납품업체들이 보다 신속하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금지급기한 단축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최근 몇몇 사례에서 문제된 바와 같이,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금지급기한이 지나치게 길어 거래 안전성이 떨어지고
납품업체의 자금난도 가중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대규모유통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대금정산주기 관련 실태를 파악·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납품업체들의 대금 안정성을 강화하면서
유통업계에서도 충분히 부담 가능하도록
대금정산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둘째,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
중소 입점업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중소 입점업체들의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서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는 온라인플랫폼을 규율하기 위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도 개선에 더불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와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거래관행을 꼼꼼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적발되면 신속하고 엄정히 제재하겠습니다.

모든 경제주체가 마음껏 도전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며,
노력의 가치를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질 때,
우리 경제는 비로소 진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전달해 주신
귀한 의견은 적극 검토해서
정책방향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